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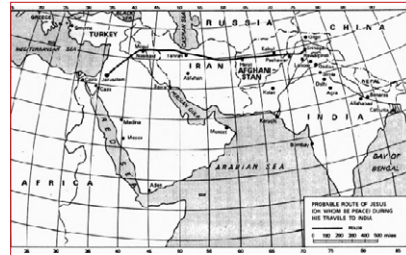
#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만나는 불교

## 해외불교칼럼

기독교신약성전에서 사라진 예수의 몇 년을 채우고자 마침내 할리우드가 나섰다.

2009년 개봉될 영화 애쿼어리언 가스펠(Aquarian Gospel)에서 예수는 인도의 불교사원들에 머물며 운수행각을 하는 신비주의자로 등장, 부당한 카스트 계급제도에 저항한다. 기독교성전을 새롭게 발굴 해석하는 개혁역계에 심층 접근한 제작진은 기존의 성전에서 누락된 그의 13세부터 30세까지 공백을 매울 자료들을 죄다 끌어 모았다. 총제작비 20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 영화는 예수를 수많은 인도 종교에서 영적 감동받은 성자이자 스승으로 그려낸다.

영화 타이틀은 미국의 리비아 다울링목사가 기독교의 중앙적 근원을 집중탐구, 1908년 초판을 발행한 후 현재까지 53쇄를 찍은 그의 저서 제목을 따랐다. (역자 주: 다울링은 18세에 목사, 남북전쟁 당시 군목으로 종군, 링컨대통령의 장례식에서 설교, 두 곳의 의과대학을 마친 개업의 및 저술가. 험담애니메이션기법을 동원해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그리스 칸 테르모페레전투를 재현할 제작진은 아랍어로 예수가 판단되는 예수가(Yeshua)의 중동부터 인도까지 행적을 추적하며, 할리우드는 물론 인도판 할리우드인 발리우드에서 배역선발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예수의 인도 시절을 담은 영화가 제작되고 있다. 예수가 인도로 들어간 통로가 표시된(붉은 선) 지도

영문기독교성전에는 예수의 초기인격형성에 대해 일곱 낱말만 적혀있다. '그 아이는 지혜롭고 당당하게 자랐더라.' 2006년 인연의 신비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크리트(the Secret)로 킬트스크린 계를 뒤쫓은 이 영화의 감독 드루 헤리엇은 예수가 동방여정을 통해 이질문화와 접하며 세계적 종교들의 기본원칙들을 발견해간다고 말했다.

이 작품은 세 사람의 현인을 스승으로 삼긴 그의 삶을 환상적이며 박진감 넘치게 처리하며, 젊은 미녀가 등장하나 그가 그녀에게 애정적 관심을 갖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제작진은 불교철학과 인도의 여러 종교가 그의 사고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했음을 주장, 제작자 시즈키넨은 '우리는 정전 건너편에 실종된 진실을 찾아 나섰으며 그가 인도의 불가촉천민계급들 감싸 안는 모습 등을 그릴 것이다'고 밝혔다. 그야 어떻게 이 영화로 인해 자칫 관람 거부 등 제2의 다빈치코드소동이 터질 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와 유사한 소재들은 이미 널리 알

려졌고 허구한 날 여기저기서 티격태격 중이다.

제정러시아의 귀족출신으로 장교, 스파이, 언론인이던 니콜라스 노토비치의 1890년 선구적 저서인 <예수그리스도의 미지의 생애>, 홀거 커스텐의 <인도의 예수>를 비롯해 <예수는 두 번 인도에 갔다>, <예수의 무덤> 등 아래 사이트에는 상세한 여행경로지도가 포함된 것도 있다.

또한 조던 맥스웰의 '빛겨진 진실'과 영국BBC의 '인도캐슈미르의 예수' 및 '예수가 안 것은 인도에서 배운 걸까?' 등 영상다큐멘터리는 연후 때 온가족이 함께 즐길만한 볼거리다.

번역·성휴 스님

### 관련저서

Unknown Life of Jesus Christ, sacred-texts.com/Jesus in india, ecocities.com/Jesus went to India, twice, sakragram.net/Tomb of Jesus, tombofjesus.com \*영상다큐멘터리 Youtube.com:The Naked Truth with Jordan Maxwell/ Jesus in Kashmir, India/Did Jesus learn what he knew from India?



## '꾸치기금회' 국적·종교 초월 자원봉사 실천

### 남아공 줄루원주민 봉사요원 임명

세계적 불교자비재단인 '꾸치기금회(慈濟基金會)'는 지난 11월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줄루원주민 8명을 2년간 교육 끝에 봉사요원으로 정식 임명, 현재 타이완 본부에서 최종연수 중이다. 45번째 꾸치기봉사단 파견국이 된 짐바브웨에 거주하는 타이완 출신 사업가들을 포함한 동 연수과정 수료 후 이들은 현지로 복귀, 고아보육, 에이즈 환자후원, 직업교육 분야에 봉사한다.

(慈濟大專青年聯誼會) 등 450만 회원들이 자비행을 펼치며, 쓰나미재난 당시에는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 국가의 긴급지원은 물론 이슬람사원을 신축해주는 등 국적, 인종, 종교, 이념을 초월한 순수 자원봉사를 실천한다.

비영리다국적자비기구인 동 재단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각급 교육기관 및 장학금조성, 그리고 병원과 보육시설들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참여불교의 참모습을 보여준다. 출처:ONA

### 불교센터 신축부지 구입 개축불사

지난 2005년 아프리카대륙의 심장이라 일컫는 우간다의 캄페에 최초로 설립된 불교센터가 태국, 일본, 브라질, 미국불자들의 지원으로 신축부지를 구입, 지난 11월부터 빅토리아호수가 내려

다보이는 수도 캄팔라국제공항 인근의 산사로 개축불사에 들어갔다.

태국불자협회는 정치경제사회 불안정으로 정신적 공황에 시달려온 우간다국민들을 위해 현지어로 평화를 뜻하는 '미림베' 청동불상을 봉헌했다. 붓다라카타 주지스님은 동 센터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불교단체들과 더불어 아프리카 포교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 밝혔다. 출처:UPI

### 중국 황금사찰모형 스웨덴서 재조립

1933년 시카고세계박람회에 전시됐던 18세기 중국의 황금사찰 모형이 동부 스웨덴의 말라렌 호반에 재조립된다. 80년 전 스웨덴의 탐험가 스펠 헤딘이 스웨덴 계 미국인 발명가인 빈센트 벤딕스의 재정 지원을 받아 중국의 본 사찰을 미국에 이전하고자 했으나 중국 측에서 단호히 거부, 그 대신 축소형 모형을 양도하여 당시 세계박람회에 조립 전시된 후 1985년까지 창고에 소장되어 왔다. 출처:UBC

## 월드 불심도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 불자는 승리를 훔치지 않는다

타이거 우즈가 고교에 진학하면서 골프훈련의 강도도 급상승했다. 그러나 그는 연습하기 쉬운 코스를 살살 행기는 따위의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다. 게다가 최악의 조건에서 특유의 도전의식마저 발동한 그는 상급반 때는 대학수준의 경쟁과 행정을 추가 선택했다.

"그는 최고의 스포츠맨이었지만 학업에 대해 늘 경건한 자세를 지녔죠." 그가 고교1년 때 세계사를 가르친 우드 선생님은 지금껏 찬탄을 금치 못한다. "우즈 그 친구의 두 눈을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교실에서나 골프코스에서나 똑같이 진지한 눈이죠."

특히 졸업할 때 행정과목담당 버터필드선생님은 그의 올곧은 학구정신을 기억한다.

"전 우즈만 생각하면 '양심적'이란 단어가 떠올라요. 토너먼트가 널모레로 다가올 때였죠. 공부하는 해야겠고 시간은 쫓기고 땀이 고민하던 우즈가 제게 오더니 자신이 최선을 다할 테니 수업을 따라 잡으려면 어떻게 할지선 가르쳐 달래요. 우즈는 골프를 핑계로 교과과정을 어릴적 넘어가거나, 대중적 인기를 이용해 적당히 학점을 때워보겠다는 식의 비열한 생각을 결코 하지 않았죠."

불자 타이거 우즈는 골프코스에서는 물론 교실에서도 승리를 훔치려 하지 않았다. 어느 채육인인 연예인이든 그에게서 배울 것이 참으로 많다.

마치 성난 수탉처럼 사지 멀정하게 경기장이나 무대 위를 팔짝팔짝 누비며 카리스마니 뭐니 으스스하다가 막상 군 입대 얘기가 나오면 느닷없이 허리가 비뚤었는지 발목인대가 늘어졌는지 비 맞은 병아리마냥 비실대는 이른바 병역회피 공인들, 타이거 우즈는 그들에게 '훔친 승리나 인기는 좀도독질' 입을 가르친다.

또한 그는 골프에서 자신의 취약점을 맹훈련으로 극복

했듯 학업도 가장 힘든 과목에 연속집중타를 퍼부었다. 그의 스페인어 담당 맥기니스선생님의 회고다.

"스페인어에 무척 애를 먹더니 한 학기 내내 불등고 씨름을 했어요. 또 같은 반 스페인어권의 친구들이랑 줄곧 어울리며 결국 회화까지 깔끔하게 끝내버리더군요. 제가 원래 학점이 짜기로 소문났지만 A를 안 줄 수가 없었죠. 학기 말이 될 즈음, 전 마침내 제자인 우즈를 존경하게 됐어요."

영원한 우등생 타이거 우즈를 키워낸 스승들의 위대함, 또한 초대강국 미국의 원천이 교육임을 새삼 절감하

### 골프 핑계 대지 않고 학업에 충실

### 올곧은 학구정신에 교사도 감동

게 된다. 다시 우드 선생님의 말씀이다.

'교사는 자신이 가르친 학생 중 예닐곱 명을 일생동안 기억합니다. 제게 타이거 우즈가 바로 그 중 한 명이죠. 그가 골프토너먼트에서 단 한 번의 우승을 못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드에 나선 선수는 타이거 우즈라는 개인이다. 하지만 그의 영원한 챔피언트로피는 그를 품고 굳세게 키워준 부모님, 그를 올바르게 가르쳐준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만들어 낸 것이다.

내 뜻대로 성공해주는 자식에 즐겨워하고, 그렇지 못한 자식을 타박하기 전에, 부모님 내가 무엇을 어찌 해왔는지 돌아보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스승님의 마음가짐 또한 마찬가지지리라.

성휴 스님



## It will pass soon - 곧 지나가요

A young monk asked a serious Dharma question to his master, but he kept laughing and walked away. Much disturbed, the monk couldn't eat, sleep nor think for a couple of days. Finally, he returned to the master, "Venerable, I should say you hurt my ego indeed." "The master chuckled again, "You fool! Your problem is that you are worse than a clown!" The monk ground his teeth with anger, "Venerable, how can you say such a thing?! How can I be worse than a clown?" The master kept laughing, "Listen, you idiot! A clown enjoys seeing people laugh. But you got hurt because I laughed. Tell me, are you not worse than a clown?" Upon hearing this, the monk laughed together and found himself suddenly enlightened.

젊은 행자가 불법에 대해 자못 진지하게 묻자 스승님은 깔깔대며 저리 가버렸다. 속이 확 뒤집힌 행자는 사나흘 밥도 못 먹고 잠도 못자고 아무 생각도 못했다. 마침내 그는 스승님을 다시 찾았다. "큰 스님께서는 저의 존재를 심히 깔아뭉개셨나이다." 스승님은 또 깔깔대다. "명칭하긴, 넌 광대만도 못한 녀석이야, 그게 문제야!" 진땀 얼을 받은 행자는 빠드득 이를 갈았다. "큰스님, 어인 말씀을 그리 하시나이까? 왜 제가 광대만도 못해요, 예!?" 스승님은 줄곧 웃었다. "잘 들어, 이 돌대기야! 광대란 사람들이 웃어주는 걸 좋아하지? 현대 넌 내가 웃어준다고 삐친 녀석이야. 그래도 네가 광대보다 낫다는 게야?" 그 말에 함께 따라 웃는 순간 그 행자는 큰 깨우침을 얻었다. 번안:성휴 스님

## 공익법인 대한불교 종단진흥 총연합회 부설 전문강원

# 중앙불교대학원 학인(승려, 행자) 모집

- ◆ 모집학과 : 사미과 6개월 과정 (3개월 기본교육 - 습의, 3개월 통신교육)
- ◆ 원서접수 : 2008년 1월 5일까지 ◆ 개강일시 : 2008년 1월 7일 (월요일)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본, 사진 5매
- ◆ 자격요건 : 강연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로 나이 학력불문
- ◆ 특 전
  - 6개월 기본교육 이수 후 사미계 수계득도 하도록 지도하고 사찰(포교원) 창건 시 초심자라도 여법히 법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졸업 후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지속됩니다.
- ◆ 사미과 교수 : 현봉 (통도사 출가, 보광선원 금당선원, 現 무사암 주지)
- ◆ 특강교수 : 법봉, 무승, 마정, 법인, 구화, 법천, 지고, 덕진 대명스님 등
- ◆ 수강료 : 일백오십만원(지도비, 삼개월 숙식제공)
- ◆ 문의처 : 본 대학 사무국 (대표전화 031-676-0908 팩스 031-676-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서울 접수처 : 02)496-3951 마정 부산 접수처 : 051)335-2210 법봉  
 경북 접수처 : 011-548-3664 법인 호남 접수처 : 011-619-1322 법천  
 경남 접수처 : 055-583-8170 무승 강원 접수처 : 033-342-6940 지고

## 공익법인 대한불교 종단진흥 총연합회 부설 전문강원 중앙 불교 대학원

